

1

**원발성 갑상선 종양과 유사한 갑상선 종괴를  
보인 침윤성 식도암 2예**

연세대학교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연세암센터, 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박형천 · 조재용 · 구본권 · 정현철  
김주향 · 노재경 · 김병수\*  
김충배\* · 박정수\* · 이광길\*\*

**서 론 :** 식도암은 편평성 세포암종이 가장 흔하며, 진행된 경우 폐, 간, 골등의 전신적인 전이가 흔하며, 국소 임파절 전이는 물론 위장의 침윤도 드물지 않다. 갑상선은 풍부한 혈관 분포에 비해 다른 원발성 종양의 전이가 드물며, 원발성 갑상선 종양이 진행되어 식도 및 기관을 침범한 경우는 종종 경험하나, 원발성 식도암의 갑상선 침윤으로 원발성 갑상선 종양과 유사한 돌출성 갑상선 종괴를 보인 경우는 국내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2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 68세 남자 환자가 2개월간의 연하곤란, 애성 및 돌출성 갑상선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5년전 폐결핵으로 치료하였으며 가족력은 특이 사항 없었다. 말초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 전해질 검사 및 갑상선 기능검사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이학적 소견상 경부에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단단한 갑상선 종괴가 촉지되었다. 갑상선 세침흡입검사상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진단되었고, 식도 조영술, 내시경 조직 검사 및 경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종격동 임파절 전이와 대동맥 외막침범 소견을 보인 식도암으로 확진 되어 5-FU( $1\text{gm}/\text{M}^2$  5 days continuous infusion), cisplatin( $100\text{mg}/\text{M}^2$ ) 복합화학요법과 6400cGy 방사선 치료후 갑상선 돌출은 소실되었으며 임상적으로 완전 관해 상태에서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증 례 2 :** 46세 남자 환자가 3개월간의 음성

변화, 연하 곤란 및 좌측 경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및 가족력상 특이 사항 없었으며 검사실 소견상 말초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 전해질 검사 및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은 정상이었다. 이학적 소견상 좌측 경부에  $7\times 8\text{cm}$  크기의 고정된 단단한 종괴가 촉지되었으며, 좌측 쇄골상경부 임파절이 촉지되었다. 갑상선세침 흡입검사상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식도조영술, 전산화 단층촬영 내시경 조직검사로 식도 중하부에 분화가 나쁜 침습성 식도암으로 진단 되었다. 복부 초음파, 전신 골주사 검사상 원격전이는 없었다. 환자는 5-FU, cisplatin 복합화학요법으로 치료중 경부의 돌출 종괴는 감소하였으나 식도흉막루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결 론 :** 성인 남자가 돌출된 갑상선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경우 상기도와 상부위장관에서 발생한 편평상피암의 전이가능성을 검사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2

**두개안면절제술을 이용한 비중격암  
치험 1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운상 · 장경만\* · 오경균 · 이용식

최근 두개저 및 두개내를 침범한 두경부 종양의 일차적 치료방법으로 두개안면 절제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방 두개저의 병변인 경우 전두골절제술 및 경안면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 두개저 병변의 경우 측두하와절제술 및 경측두접근법 등이 사용된다. 저자들은 사골판 및 계관을 침범한 비중격암을 두개안면절제술을 이용하여 완전 절제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여자 52세로서, 2년간 지속된 비폐쇄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부비동 자기공명영상에서 비중격과 사골동 및 전방두개저를 침범한 종양의

소견을 보였으며, 비강내 조직검사상 악성혼합종으로 진단되었다. 수술은 1993년 6월 13일, 측방 비절개술 절개를 하고, 내측 상악골절제술을 시행하여 비강내 종양을 제거하였으며, 수술소견상 사골판 및 계관에 종양의 침범이 있어 이관성 절개를 통하여 두개저 병변을 제거하였다. 술후 추적관찰에서 1994년 현재까지 합병증 및 재발은 없었다.

3

### 홍관 결찰후 발생한 유미흉 2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윤상 · 오경균 · 이승호\*  
박범정 · 이용식

유미흉은 홍강내로 유미즙이 고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홍관 결찰후 발생하는 유미흉은 매우 드문 경우로 이는 주로 주립프관의 결찰에 따른 역압으로 홍강내로 유미즙이 비외상성으로 일출되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저자들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경부곽청술후 발생한 유미흉 2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2례 모두 경부임파절 전이로 기능적 경부곽청술시 홍관 손상으로 인해 홍관 결찰을 시행하였다. 2례 모두 술후 첫째 날부터 복부팽만감및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였고, 둘째 날에는 호흡곤란도 호소하였다. 추적 흉부 X선상 양측 흉막유출 소견을 보였고(한 레에선 6번째 늑간에 다른 레에선 8번째 늑간 수준이었다), 홍강천자시 노란색을 띠는 우유빛 체액이 배액되었다. 바로 금식및 전비경구적 영양을 시행하였으며 1레에선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여 교정이 필요하였다. 술후 15일째 부터 모든 증상이 소멸되었으며 경구 섭취가 가능하였다.

4

### 섬유점액종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윤상 · 박창국\* · 오경균 · 이용식

섬유점액종은 드문 양성종양으로 하악골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외 두경부영역에서는안면골 및 기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학적으로, 섬유점액종은 섬유성 및 점액성의 간질로 구성된 양성병변으로 점액종의 섬유성 아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저자들은 최근 홍쇄유돌근내에 발생한 섬유점액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58세 여자로 4cm 크기의 우측 전경부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갑상선스캔상 갑상선의 종물 소견을 보였으며, 세침흡인세포검사상 혼합종을 암시하였다. 치료는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종물은 홍쇄유돌근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병리 조직학적으로 섬유점액종으로 진단되었다.

5

### Maxillary Swing Approach를 이용한 비인강암의 수술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이용식 · 김승태\* · 심윤상 · 오경균

비인강이나 두개저의 접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여러가지 수술적 방법은 병변의 위치, 범위 등에 따라 기존의 술식을 그대로 또는 변형을 가하여